



# Don't be evil

## 구글을 키운 “악해지지 말자”

구글은 21세기 최고의 경영변혁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같은 급성장의 배경으로는 창의적이면서도 집요하고 공격적인 페이지와 브린의 경영능력이 최우선으로 꼽히곤 한다. 그러면서도 과거 경영자들처럼 경영권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이 더 매력적이다.



○ 인터넷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검색엔진업체 구글의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이 둘 두 사람은 각각 아버지가 수학 교수라는 공통점과 함께 스탠포드 대학에서 수학도로서 자신들의 꿈을 키웠던 님은꼴의 삶을 살았다.

미시간 출신인 페이지는 꼬마 시절부터 발명가를 꿈꿨다. 발명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당찬 꿈을 가졌다. 러시아 출신인 세르게이 브린은 6살 때 수학자인 아버지와 미국항공우주국(NASA) 과학자인 어머니를 따라 미국에 왔다. 대중적인 친화력이 뛰어나고 수학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브린은 페이지와의 만남을 통해 인터넷 검색의 세계를 향한 꿈을 키워나갔다.

### 집요한 성격까지 님은꼴

세계 정보기술(IT) 혁명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의 탄생과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스탠포드 대학 박사과정에서 함께 검색기법 연구에 몰두한 이들은 인터넷의 대변혁을 이뤄냈다. 1995년부터 검색엔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들은 창의력이 뛰어난 천재 청년임을 곧 입증했다. 이 둘 두 사람은 이어 냉철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자독적인 경영 자세로 구글 신화를 만들어냈다.

수학을 전공한 이 둘 두 사람이 구글을 만들게 된 계기는 수많은 밤샘 연구 끝에 개발한 페이지 랭크 기술과 하이퍼 텍스트 매칭 기술이다. 이는 키워드별로 고객이 클릭하는 페이지의 경로를 알고리즘화해 웹 페이지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계산해내고, 페이지 간의 관련성과 페이지 내의 관련어 배치 등을 고려해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술이다. 아무리 복잡한 내용을 검색창에 써넣어도 0.5초면 자신이 찾는



가장 근접한 검색결과를 제시해준다. 이는 야후 등 다른 검색엔진들과는 성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막강한 기술력이었다.

이들은 집요하고 공격적인 토론으로도 유명하다. 최고경영자를 선발하기 위해 수백명의 기업가를 인터뷰했고 에릭 슈미트를 집찍은 후에는 공격적인 토론과 설득을 통해 슈미트를 영입했다. 당초 신생기업이라며 영입 제의를 우습게 생각했던 슈미트는 이들의 폭넓은 시야와 예지력에 감탄해 결국 구글의 CFO가 됐다.

그 결과 구글은 21세기 최고의 경영변혁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매일 6500만명이 접속하고 88개의 언어로 매일 2억 5000만 건 이상 검색건수가 집계되는 세계 최대이자 최고의 검색엔진이 됐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연일 세계를 놀라게 하는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월가의 선두주자로 부상해 있다. 구글의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월스트리트저널을 만들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뉴욕증시의 등락도 구글의 주가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급성장의 배경으로는 창의적이면서도 집요하고 공격적인 페이지와 브린의 경영능력이 최우선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논리적이고 집요한 경영특성을 보이면서도 과거 경영자들처럼 경영권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이 더 매력적이다. 조직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인 '권한위임(Empowerment)'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며 매사에 둘다리를 두드리며 실행하는 겸손함을 보여줬다.

### 진재주 부릴 줄 모르는 경영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막강한 경영권함과 가족승계에 집착하면서 구태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CFO를 슈미트에게 양보하고 자신들은 부사장으로 전 세계를 오가며 구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직원들의 의견이 존중됨은 물론이다. 이들이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슈미트는 과거 노벨 CFO 등의 경력을 최대한 살려 구글의 미래 준비 및 현재 경영에서의 이익 극대화 등을 추구하는 '삼두미차'로 활약하고 있다.

두 사람이 정직성을 강조하는 것도 구태의연한 기업가들과 차별화된다. 구글의 기업목표는 '악해지지 말지(Dont be evil)'다. 다른 기업들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구두선을 남발하며 뒤로는 고객을 우롱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러나 구글은 진재주를 부리지 않는다. 검색엔진에 광고를 띄우지 않는다. 검색이라는 고객의 원래 목표에 가장 충실한 검색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대다수의 경영자나 상사들이 권한위임에 인색하다고 꼬집곤 했다. 드러커는 대부분 상사들이 부하 직원의 건의에 대해 "회사정책에 어긋난다(That s against policy)", "닥치고 사키는 일이나 하라(Shut up and do as you re told)"는 식의 답변으로 회사의 분위기를 경직시킨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지도자나 경영자는 조직의 에너지를 결집시켜 기업의 잠재력으로 연결시키는 데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다.

손자는 손자병법 병세편(兵勢篇)에서 '전쟁에 능한 자는, 승리를 전세에서 구하고 사람의 능력을 닦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재를 잘 골라 전세에 적응케 한다. 전세에 잘 적응하는 자는, 휘하 장병을 싸우게 함이 마치 나무나 돌을 굴리는 것과 같다(做善戰者 求之于勢 不責于人 故能擇人而任勢 任勢者 其戰人也 木石之性)'고 했다. 구글식화의 주인공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굳이 손자의 병법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 같은 경영원칙을 몸에 체득하며 인터넷 시대의 최강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